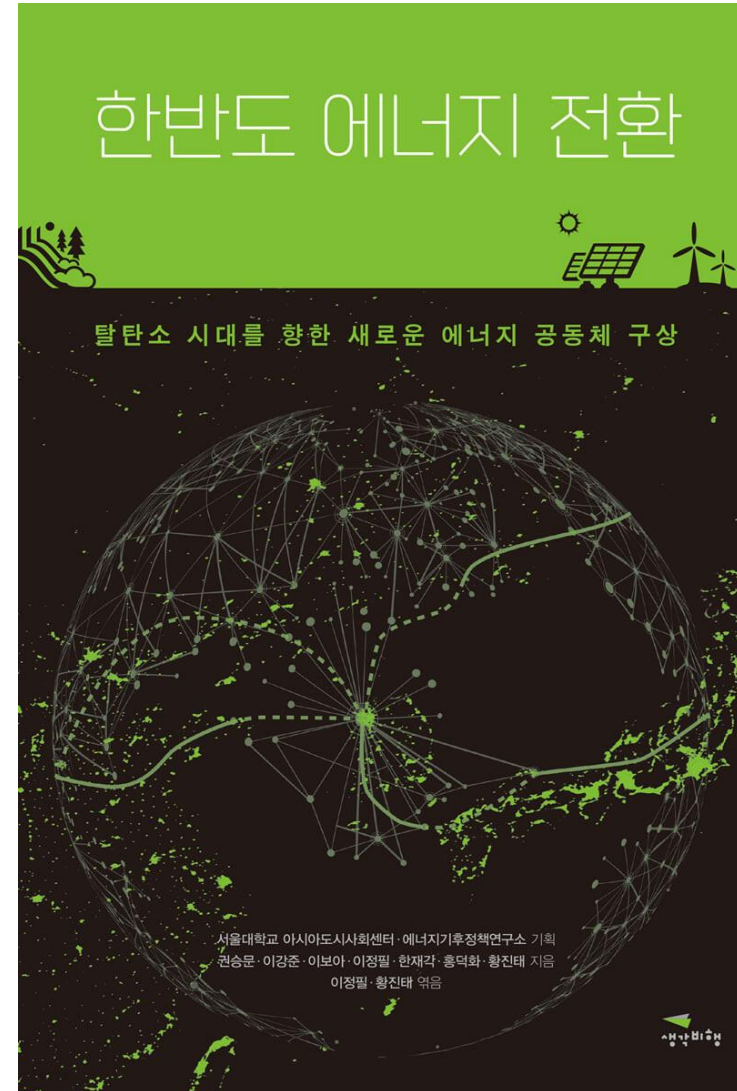


한반도 에너지 전환과 탈탄소 평화 공동체 구상

황진태(dchjt@kinu.or.kr)

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 부연구위원

한반도-에너지-전환



한반도 에너지 전환의 상상을 막는 세 가지 맹점

1. 방법론적 국가주의: 한반도 = 남한 + 북한?

→ 주변국가/도시들과의 국제관계적, 물질적 연결성 간과

2. 방법론적 경제주의: 남한(자본) vs. 북한(자원매장지)

→ 경제적 가치에 비해 비경제적 가치들(문화, 평화, 생태, 지속가능성 등)의 주변화, "하나의 민족" 담론이 다른 가치들을 배제할 수도.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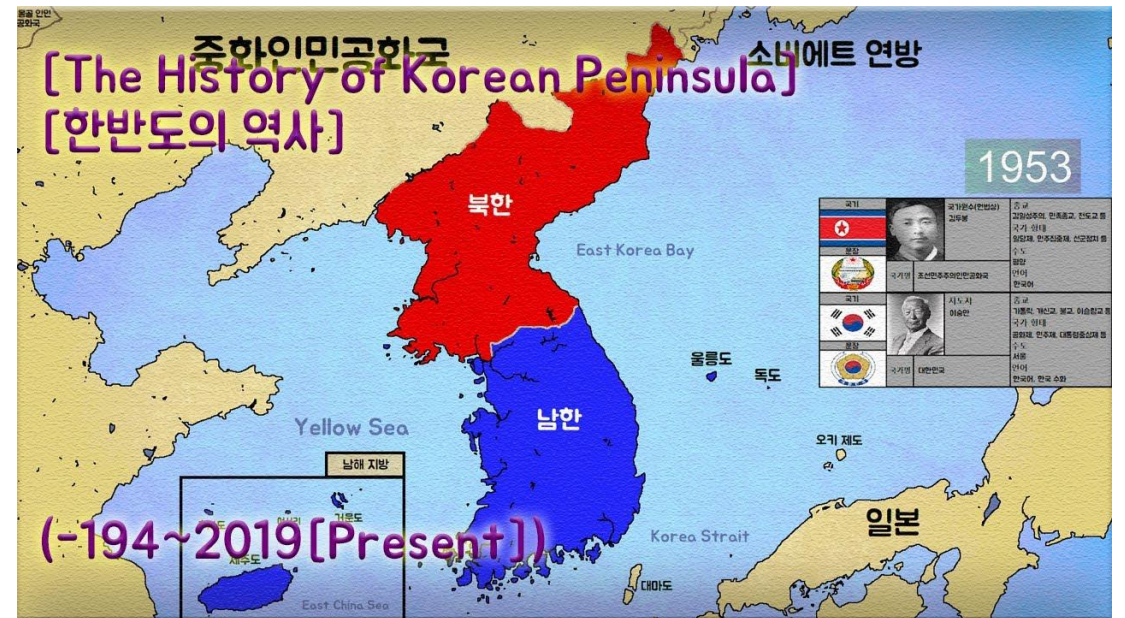
3. 방법론적 남한주의: 남한(주체) vs. 북한(객체/대상)

→ 한반도 에너지 전환과 (탈)탄소 평화 공동체는 누가 구상하는가?, 북한에 대한 내재적 이해의 필요성

1. 방법론적 국가주의

방법론적 국가주의와 한반도의 공간성

- 방법론적 국가주의: 민족/국가주의라는 이데올로기와 국가라는 지리적 스케일을 중심으로 사회공간을 인식하면서 다양한 지리적 스케일(글로벌, 국가, 지역, 도시 스케일 등)이 사회공간에 미친 영향을 놓침(박배균, 2012)
- (신)냉전 구도: 러시아-중국-(북한) vs. (남한)-미국-일본
- 한반도 = 남한 + 북한?



출처: <https://www.youtube.com/watch?v=AKYhwuv4cdc>

국가 스케일을 넘어선 행성적 도시화



- NASA: 평양은 “작은 섬”, 북한의 해안선이 보이지 않는 이유로 남북한 국민의 1인당 전력소비량 차이를 언급
- 도시적인 것(the urban): 지도 상에 그어진 국가 경계를 잊고, 야간불빛만 본다면 동북아에서도 행성적(planetary) 도시화가 진행 중
- 블랙홀과 같은 북한으로도 불빛은 확산될까?
- 중국의 도시화와 북한의 석탄 수출 간 관계(2010년대 북한은 중국의 최대 무연탄 수입국이었음) → 산둥반도의 불빛은 북한과 관련

2. 방법론적 경제주의

“자원의 보고”로서 규정된 북한의 공간



“북한 광물자원 어마어마...땅 밑에 '삼성·현대' 있는 셈” <한겨레>
 “北 광산 가치 어마어마한데... 광물수출 99%가 중국으로” <한국일보>

남북한 평화 공동체?

• 남한의 북한 석탄에 대한 인식



“남북접경지에 ‘평화발전소’ 건설 추진”(경향신문 2018.05.08)

• 북한의 석탄 입장

- “석탄공업부문에서는 탐사를 앞세우고 고속도굴진운동을 계속 힘있게 벌려 탄밭을 늘이며 선진적인 채탄방법과 기계수단들을 받아들여 석탄생산을 장성...”(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의 2021.12.)
- “탐사와 굴진을 앞세워 확보탄량을 더 많이 조성하고 새로운 탄광과 갱들을 대대적으로 개발하여야...”(김정은 최고 인민회의의 2019.04.13.)
- “굴진을 확고히 앞세워 470여개의 예비채탄장 확보”(로동신문 2021.12.27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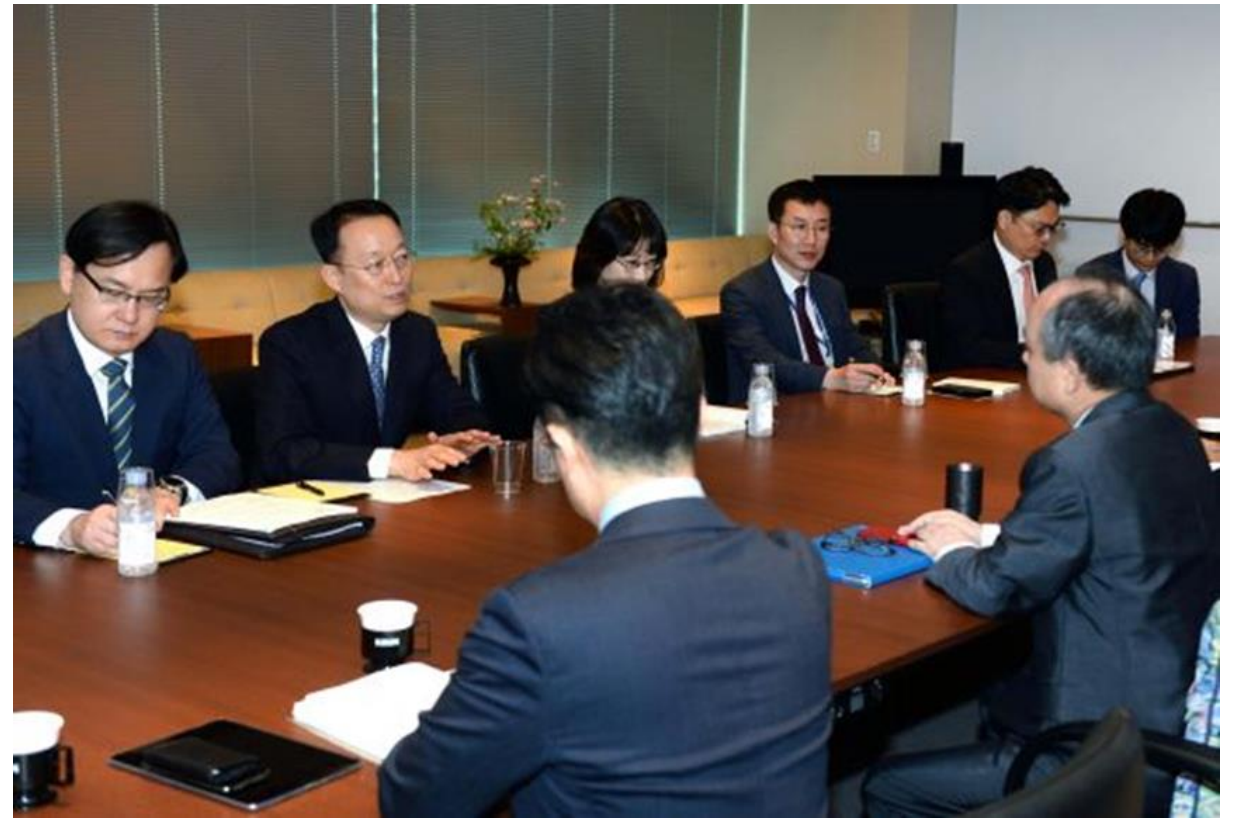


3. 방법론적 남한주의

국가-자본 주도 아시아 슈퍼 그리드 논의



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의 아시아 슈퍼그리드 계획



손정의와 前산업통상부장관의 슈퍼그리드 관련 회의(출처: 국민일보 2018.5.8.)

→ 상이한 체제(자본주의, 사회주의)의 이해 결여, 성장주의 경도, 다른 전환 경로 성찰 봉쇄(홍덕화, 202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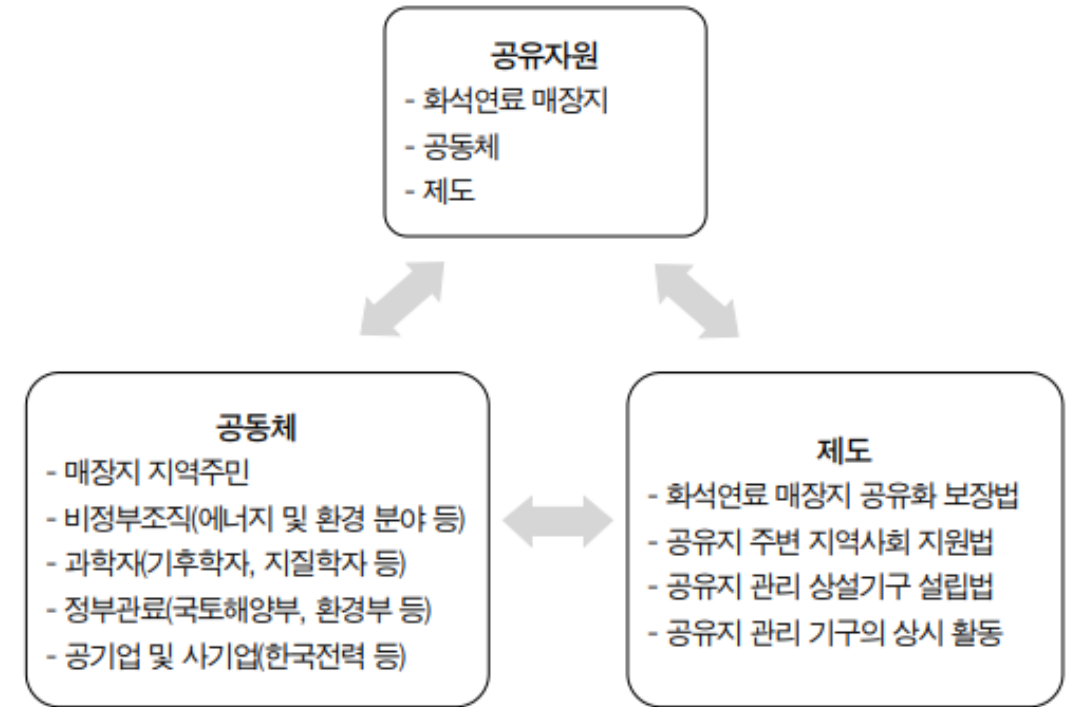
보다 구체적이고, 실천적인 환상 모색

환상 1: 북한의 석탄을 땅 속에 내버려두기



- 중국과 남한의 도시화 사이에 낀 저발전된 북한을 행성적 도시화의 배후지(hinterland)로 삼을 가능성
- 불균등발전 패턴은 경제적으로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(수도권 중심의 성장거점과 평양 경제권을 중심으로 경제성장이 이뤄지고, 나머지 북한 지역은 한반도 및 동북아 도시화를 뒷받침할 자원 공급처로서 지역 공동체/지역 생태계가 파괴될 가능성이 높음)
- 불균등발전을 피하지 못한다면, 특정 성장거점이 낳은 부를 분배의 측면에서 성장축이 없는 북한지역에 배분하는 방식 고려. 특히, 북한의 지하자원이 매장된 지역에 대해서 채굴하지 않고, 땅 속에 내버려 두는 것에 대한 보상적 접근
- 인류세, 저성장 시대에 화석연료를 땅 속에 내버려 둠으로써 얻는 경제적, 환경적 효과는 화석 연료 기반 남북한 평화공동체보다 정당성 확보

환상 1: 북한의 석탄을 땅 속에 내버려두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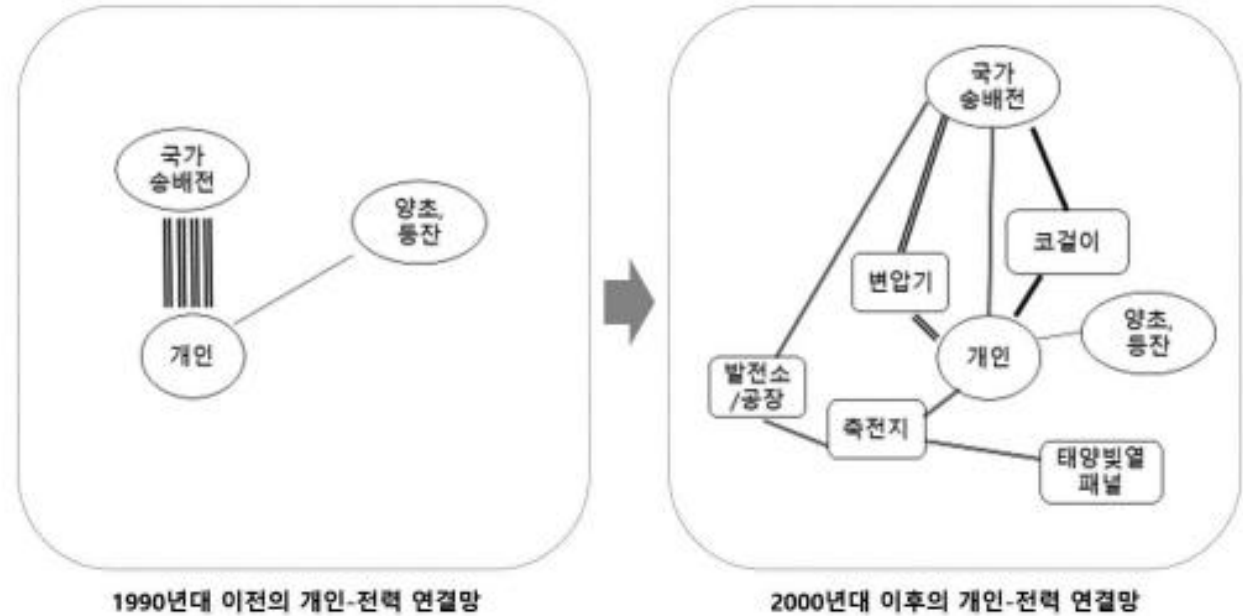
북한 화석연료 매장지의 커먼즈 관리 모델(황진태, 2021)

환상 2: 북한의 분권형 에너지 전환

- “전력공업부문에서는 ... 다양한 자연에너지에 의한 발전능력을 더 많이 조성하여야 한다”(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전원회의)
- 재생에너지법 제정(2013년), 자연에너지 연구소 설립
- “지역의 특성에 맞는 통합전력관리체계를 구축하기까지”(로동신문 2022.02.03. 회령시송배전소의 무선통신에 의한 통합전력관리체계 구축 보도)

→ 북한식 분권형 에너지경관은 역으로 남한의 탈탄소 공동체 형성을 가속화할 모멘텀이 될 수도..

북한사회의 개인-전력 연결망의 변화



출처: 박민주(2021: 52)

환상 2: 북한의 분권형 에너지 전환



팔로우
Pyongyang si, North Korea

Pyongyang apartment
watchers. 🍌
14주

Pyongyang #dprk
#northkorea #korea #북한 #조선

좋아요
2020년 11월 2일

댓글 달기...



팔로우
평양

그녀의 일을 하는
평양 교통 경찰!

#경찰 #Northkorea #korea #떡볶이 #태권도 #태극기 #한국 #대한민국 #김치 #김밥 #종교 #정지 #정부 #반도 #한국어 #교통 #DPRK #통일 #음식 #면 #kimjongun #평양 #pyongyang #트롯 #영화 #kpop #냉면 #조선 #김정은

조회수 475회
2020년 11월 2일

댓글 달기... 게시

결론: 숨은 그림 찾기의 자세로



- 한반도 에너지 전환을 논하기 위해선..
 1. 개별 에너지 사업 부문을 넘어서 거시-미시적 수준을 종합하는 다층적 차원에서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전환적 사고 필요
 2. 남한과 북한이라는 개별적, 폐쇄적 국가 공간이 아닌 한반도와 동북아라는 새로운 연결성과 위치성을 담을 수 있는 한반도 차원의 새로운 사회공간적 상상력 요구
 3. 과거의 사실을 바탕으로 예상되는 미래 (expected future)를 가정하던 것을 넘어서 바람직한 미래(desirable future)로 나아가기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, 실천적인 환상을 고안

감사합니다!!